

소방 관련 주요 언론동향

2020.02.11. 조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소명입니다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








 1.






	001	'	'	4
	a01	"	, 11 美 前	"...	4
	a01		92	5
		,	中	..."7 5 ...	6
		1600	' 가	'...	8
	TV, 가 45...	9
		21	.	19 0...	10
				가 가 가...	11
	TV	"	"...	12
			3 11	13

 2.

				..."	14
		,	"	".....	15
		,	'	' 3 ...	16
		'	'	6	17
	KBS	[]	? 가 ...	18
		'	12 ' 4	' '...	19
				..."	21
		,	'	23

 3.

	1	가		...2	25
				26
				...1 ...	27
	KBS		...1 40	28
	1		1 10m . . . 40	...	29
			8 1 ...	30
				88 ..."6	31

 4. .										
			,	450	...18		...		32	
		"		"		,	'	119	...	33
 5. /										
	025	/							34

불안이 불안 키우는 ‘코로나 과잉대응’

과도한 휴업·휴점 등 역효과 우려 의료계 “낙인찍기식 대응 멈춰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는 지난 6일부터 임시휴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울시교육청이 두차례에 걸쳐 휴업 명령을 내린 중랑·성북·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 등 6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이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휴업을 결정했다”는 것이 학교 쪽 설명이다. 이 학교는 12일까지 휴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6·8·16·18·19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과잉대응이나 과도한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낙인찍기식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신속한 조기 진단과 환자 관리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 과도한 불안과 선동, 비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백가쟁명식 해법, 환자·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콜센터)		
(단위: 명)	확진자	사망자
한국	27	-
중국	4만171	908

※10일 오후 10시 기준 자료: 질병관리본부

촉자에 대한 낙인 등”이라고 밝혔다.

▶6면으로 이어짐

박다혜 노지원 이유진 선담은 기자 doall@hani.co.kr

“트럼프, 11월 美대선 前 김정은과 회담 않는다”

CNN “작년 실무회담 결렬 좌절감 참모들, 중요 재선 사안 생각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미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고 CNN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재선 캠프의 참모들은 북한 문제가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NN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가 난항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에 관여하려는 욕구도 시들해졌다고 전했다. 특히 그가 지난해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양국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좌절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죽었다(dead)’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다른 관리는 “대선 전 북한과의 거래를 추진하려는 대통령의 욕구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국정연설 때도 북한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 내가 아니었으면 미국은 북한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화이트 오스카 92년’을 뒤집다

(백인 중심)



AP연합뉴스

Parasite! Parasite! Parasite! Parasite!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을 거머쥔 순간 무대도 객석도 포효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의 봉준호(오른쪽) 감독은 시상자인 배우 제인 폰다로부터 작품상 트로피를 건네받으며 환호했다.

축제가 끝나자 그는 무대 뒤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92년 아카데미의 역사가 뒤집힌 순간이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은 이날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 감독상·각본상·국제극영화상까지 오스카 트로피를 무려 4개나 거머쥐었다. 모든 첫 기록이 새로 쓰였다. 한국 영화는 101년 만에 처음 아카데미상을 품

에 안았고, 92년 전통의 아카데미상은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에 작품상을 안겼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같이 받은 것 역시 1955년 미국 영화 ‘마티’ 이후 두 번째다. 과거의 날이었다. ‘기생충’과 최고상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영화는 샘 멘데스 감독의 ‘1917’. 백인 감독이 만든 백인 주류의 전쟁 영화를 누르고, 한국 감독이 가장 한국적인 상황을 한국어로

봉준호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비영어권 영화 사상 첫 작품상 감독·각본·국제극영화상까지…
봉 “한국적인 것에 세계 매료”
그러낸 영화가 오스카를 켜안았다. 멘데스는 시상식 직후 “‘기생충’은 마스터피스(걸작)”라고 했다.

할리우드 명배우 제인 폰다가 작품상 수상자로 “패러사이트(기생충!)”를 외치자 객석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트로피를 안은 제작사 바론손이앤에이의 확산에 대표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봉 감독도 “한국적인 것들이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철웅성이 부서진 자리, 패러다임은 다시 쓰인다. 아카데미상은 2016년부터 백인 남성 위주의 영화제를 바꿔야 한다는

비난에 시달려왔다. 이에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회원의 소수인종 비율을 8%(2015년)에서 16%(2018년)까지 늘려왔다. 이 시점에 등장한 봉준호의 ‘기생충’은 아카데미의 문법을 파괴하며 역사를 새로 썼다. 이어령 전(前) 문화부 장관은 “‘기생충’은 기생이 아닌 상생 영화다. 서양 문화에 ‘기생’하며 좇기만 하던 한국 영화가 세계 문화의 흐름을 바꾸며 대반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송혜진 기자 기사 A2·3·20·21면

, 中

..."7

5

"

()

2020-02-10 16:40

가 ...

"

...

"

()

가

.

10

"

20

가

"

"

가

가

" "

"

"

"

"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

" "

"

"

"

.

1600 가 '... .

2020-02-10 16:13

" "

() 가 가 10 가

가 1600

가 9

" 가 " 가 가 "

가 가 " (가 " "2015)

" " (가) 가 (가 ")

" 가 " " 2

가 가 " 가 가 가 "

가 21 가 가 가 ,

(793 가) 17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7.5 ,

가

2020.02.10. 8:42 ... , 가 45

[] 가

[] 가

가 " 가 "

16

SNS

, 가

가

2 가

45

"

"

20

20

TV

21

19 0

2020-02-10 15:24

16 . 18
21

19 0 18 가 가
10

가 가 16 가 4 14 17
(5) 18 0 18

21 24 , 36 , ,

가 11 446 가 가

16 가
가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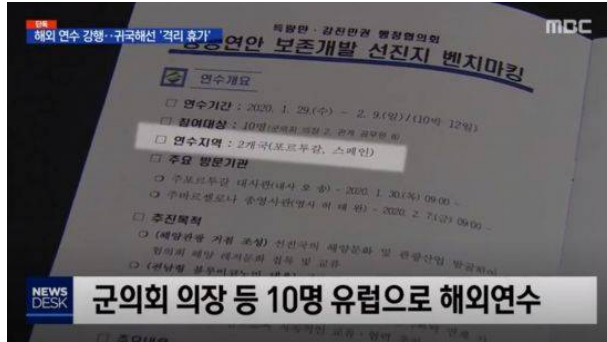
50 가 40 , 10

가 가 가...'

가 '

2020.02.10.

11:27



가

5

가

10 MBC

29

10

10 12

()

가

가

5

가

가

가

1200

8 4000

" "...

2020.02.10. 8:27

[]

가

가

[]

< > "

< / () > " 36 ..."

35

TV

3 11

2020.02.10. 11:28

150 ...

()
가 150 3 가 11

1 12 () 10 "3 " 가 1

, , 150 가) . 1.2 가 (
, 5 .

3 1.2 가 14 1 1

" "

16 1.2 15

..."

"

2020-02-10 12:00



()

10

20 21

600

2

. 1 1

2

6

"
'
"

가

가

가

"

, ' ' 3

2020-02-10 13:40



(6 11)

10

3

1 600

1 20 2 . 2

1 2

1 , 2

3

" 가

, "

' 6
2020-02-10 12:00:00
, .
'가 6
' ()
10
11) 6 11 '(
()
가 가
20 21 600
"2016 5 가 " "

[]

? 가

2020.02.10 18:34

, 가
?

, . . .
, ?

2

가

, .

' 12 ' 4 ' ... " , 가

2020-02-10 10:39

10

"4 廳, 가 "



" 가 가 "

10 (52)

2 가 '2019
10 28 ' .

" 가 (63) " 가 가 "

40m 가 가 가 80m .

7 가 (沖繩) 가가 (首里城) . 100

2020-02-10 15:16:07

... 가 "



소방피출소는 화재 신고출동 거의 없고 소방차보관 수 사라진 달아놓고 대기소에서 머물렀고 현안하게 경찰 지도 영문 대립 받고,

경찰은 화재 신고출동 순찰차에서 보그리 영문 지도 함께 찍는다.

소방은 경찰하고 기본급은 같고 수당은 더 받는다.
소방과 경찰 근무환경이 하늘과 땅 차이다.

경찰도 영문 더 하고 싶다.
382과대 하고 수당 더 많이 받고
특수직무수당도 특별수당도 받고
소방에서 382과 대하고 싶어요

10

15

가

가

"

"

"

"

"

가

" "

,

"

"

가

" "

"

가

"

" '24

가

"

가

"

가

"

"

,

"

.

) (

2020-02-10 17:35

...10 15

" , "



가 4 · 15

3

, ,

2018

가 ,

10 "

" , 가

"

"

59

가 21

18

가

13
2018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10 15

6

"

,

"

가

...2

2020.02.11.

12:42



10

6 37
50

가

3

A (59)가

B (50 .)가

3500

2
가 . , 3

2

...

2020-02-10 18:54



10 8 40
, 119

6

가 A 가
119

A

1 100

20

A 가

...1

4

2020-02-10 21:00:57

4 ,
1



10

1

4

10

1 38

4

1 가 .

(. 88) 가 1
(1)

(. 37)
(. 25)

11 6 5

1 가 .

가 1 가 , 가

489

...1 40

2020.02.11.

5:02



(10)
40

21 45

1

220

,

1 10m . . . 40

2020.02.10. 6:12



10 10 49
A (48) 1
A 가

10m

8

...

.

1

()

2020-02-10 15:24



8

.

10

A

" 가

7

10

35

가 119

.

500m가

4

1

8

.

.

A

"

2

15

"

"

,

8

가

119

"

3

"

"

"

"

.

88

... "6 · 25

"

2020.02.10.

10:40

10

가

(軍)

(EOD)

' 가 "

2 49

"

6 30

88

" ,

" "

6 · 25

"

가

'

450 ...18

2020-02-10 13:51



2020

10

450

322

128

18 20

28

6

7 2

(<http://fire.gwd.go.kr>)

" 가

가 "

"

" " , ' 119 ' "

2020-02-10 16:33



3 31 . . '2020

119 ' 10 . .

1963 '119 ' .

119 119 , 119 , 119

119 119 (www.young119.or.kr)
(043-249-9242) .

 인사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류상민
-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교류협력실장 김장현 ◇과장 전보 등 △기획조정실 통일법제 지원팀장 박성렬△교류협력실 교류총괄과장 구병삼△교류협력실 남북경협과장 박상돈△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 오미희△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 김상영△교류협력실 남북접경협력과장 이장성△교류협력실 개발지원협력과장 임현정△교류협력실 교류지원과장 이종현△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 김훈아△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장 김유진△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업관리팀장 이유진△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강연서△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 송희경△남북회담본부 회담3과장 강준석△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장 엄형울△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장 이정택△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장 김영산△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장 조용식△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운영팀장 송인현△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장 배충남△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운영과장 한건섭

- 환경부 ◇실장급 승진 전보 △4대강 조사·평가단장 김영훈 ◇국장급 전보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 박용규△물통합정책국장 신진수
-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가족정책관 김권영△교육과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정심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감사담당관(개방형)이영택
- 통계청 ◇과장급 △감사담당관 이영보△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양경진△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이주원
- 금융결제원 ◇1급(부장) △고객금융부장 고원상△해외협력센터장 고해록△비서실장 문영석 ◇2급(수석부부장) △금융데이터융합센터장 김시흥△어음지로부장 김하균△인증기획부장 강인양△리스크관리실장 이동욱△신사업개발실장 조형섭△경영기획부 조직관리팀장 임찬혁△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장 김대중△인증기획부 인증개발팀장 김용준 ◇3급(부부장) △리스크관리실 리스크대응팀장 최영준△금융결제연구소 신사업개발팀장 이한욱△해외협력센터 국제교류팀장 문윤정△인증업무부 인증인프라반장 임기철△인증기획부 미래인증개발팀장 오연준△인증기획부 인증기획팀장 정성아△IT기획부 IT기획팀장 설

정환△경영기획부 김정훈△금융결제연구소 황선철△금융정보업무부 하정석△어음지로부 이은△차세대인증부 구현△IT개발부 천장욱△IT운영부 윤태권 진상현△정보보호부 신휴근 ◇4급(과장) △경영기획부 김정균 정현수 △고객금융부 이양상△금융정보업무부 송수경△인증업무부 임윤정△IT개발부 이종민 정윤호 심현호 이광재△IT운영부 김보영△e사업전산실 김민재

 부고

- 심재련씨 별세 심영보(전 서울은행 서소문지점장)·승보(보성정밀 대표)·정보(전 부산관광공사 사장)·인보(보성테크 대표)씨 부친상 심규태(유니포인트 부장)씨 조부상 10일 서울 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2258-5940
- 조복환씨 별세 조규웅(자영업)·규용(가평축협 조합장)·규관(가평군 자치행정과장)·규형(가평군 군정홍보팀)씨 부친상 10일 가평농협 효문화센터, 발인 12일 오전 7시 (031)581-4441
- 이범자씨 별세 김갑수(굿모닝총청 총남팀장)씨 장모상 10일 충남 홍성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9시 20분 (041)630-6244

